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方向

孫鐘欽*

<차례>

1. 序論
2. 江湖의 性格
3. 조선시대 선비와 江湖歌辭
4. 江湖歌辭의 性格
5.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
6. 結論

1. 序論

조선을 세우고 이끌어간 핵심 세력이었던 선비들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士族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생계가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과거에 나갈 준비를 함과 동시에 조정에 출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여기는 산과 강을 찾아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풍류를 즐기면서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조세를 내야 하는 일반 백성들의 살아가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비였다. 이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선비들의 생활은 문자로 대표되는 기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우주와 사회와 정치, 그리고 이념 등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하는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그들이 지어낸 글에는 자신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과 우주와 자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 형태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중심 수단으로 삼은 것은 漢詩, 時調, 歌辭 등을 비롯한 詩(歌)와 다양하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文이었다. 다양한 표현수단 중 시조와 가사는 우리의 정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서를 노래함과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한시나 시조처럼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長歌의 형태로 지을 수 있었던 歌辭는 생활 현장에서 짓고 즐길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享有層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정치적 이념과 교훈적인 사상들을 중심으로 노래하면서 작가의 이념과 정서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가사는 조선전기까지는 선비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특히 강호가사는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왜냐하면 강호라는 곳이 일단 사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설정조차 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개념의 명칭이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강호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意識과 情緒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강호가사는 선비가 아니면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 될 수밖에

* 방송대학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관계로 조선시대 강호가사의 작가는 선비가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사의 갈래가 다양화한 조선후기에 이르러 강호가사의 전통이 그 맥을 잇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분제의 변화는 조선 사회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으니 이 때 이후로 강호가사의 전통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은 18,9세기 이르러 더욱 격화되면서 엄청난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은 민족문화를 더욱 위축시켰다. 더욱이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곧바로 6·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참상을 또다시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오랜 세월이 걸쳐 폐쇄화된 민족의 삶을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의 세기로 통칭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방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든다면 바로 웰빙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웰빙은 21세기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화두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강호에 비견될 수 있는 전원이라는 공간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웰빙 열풍은 그 동안 끊어졌던 강호가사의 전통이 웰빙이라는 생활방식과 맞물려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조선시대의 강호와 21세기의 전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웰빙열풍은 강호가사의 부활을 점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의 강호가사를 계승하는 현대의 강호가사는 웰빙가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2. 江湖의 性格

2.1 生活의 空間

작품의 내용으로 볼 때 강호가사의 소재와 배경이 되는 강호는 세속적인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호의 공간은 결코 세속을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강호를 사랑하면서 가사를 짓는 작가들 역시 세속의 공간을 떠나서 살아가는 신선이 아니었다. 피치 못할 정치적 이유로 인해 강호로 들어왔던 선비의 경우에는 出仕의 기회가 생기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삶의 근거지인 세속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호가사의 주요 배경이 되는 강호라는 공간은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修身齊家와 治國安民을 위해 세속의 공간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生活口號처럼 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¹⁾인 歸去來의 장소가 되는 강호는 선비의 삶에 중심이 되는 공간일 수는 없었지만 싫건 좋건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그리고 살고 싶어 하기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仙界의 공간이기에 앞서 생활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강호가 생활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도 선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세속의 공간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강호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세속의 공간 속에 있으며, 작가들이 실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세속의 공간이며, 생활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에 나타난 강호의 상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의 화자는 해가 뜨면 일어나 자신이

1)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11쪽.

머물러 있는 강호의 자연경물을 완상하면서 즐기는 행위를 하는데, 작품의 내용이 진행되는 순서나 상황 등이 모두 세속의 공간과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생명의 탄생을 감탄하고, 여름이 되면 신록의 푸르름을 마음껏 즐기며, 가을이 되면 추수의 감격을 이웃과 함께 하고, 겨울이 되면 얼음과 눈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물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 등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강호가 물리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그것만이 강호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비는 자신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이념을 강호를 통해 이루기도 하기 때문이다.

2.2 理想實現의 空間

조선시대 선비에게 있어서 삶과 생활의 공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속적 현실 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도교적 세계관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상적 현실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강호의 자연공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호가사의 발생 장소가 되는 강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생활의 공간으로 세속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치적 현실공간과 이상적 현실공간이라는 구별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강호가사를 지은 작가들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 세속의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반 백성이나 환로에 있는 선비들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의 공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임과 동시에 세속의 공간과 구별이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차별화를 통해 강호의 공간을 선계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신의 작용을 통해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 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得道를 통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본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 시간과 공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설정된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향으로서의 仙界다. 이러한 공간은 실재하는 것처럼 말해지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실체일 뿐이다. 이런 세계를 범칭 하여 理想世界라 하는데, 강호가사에서 선비들이 노래하는 강호가 바로 이런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호가사에서 그려지는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세속의 공간이지만 관념적으로는 道學的 理想世界가 실현되어 작가의 바로 눈앞에 놓인 상태의 공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호에 있는 작가는 이상세계인 선계에 있는 신선이 되어 세상의 모든 영욕과 물욕을 초월한 존재로 된다. 이것은 바로 강호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늘 꿈꾸고 동경하던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物我一體와 心身修鍊의 空間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세속의 공간과 맞닿아 있고, 관념적으로는 이상세계가 실현된 장소가 바로 강호다. 그러나 강호가사를 짓고 즐기는 작가는 속세의 공간을 완전히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세에서의 정치적인 삶 역시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을 지탱해주는 핵심이 되는 사상으로 정치적 이념을 이루는 유교의 世界觀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선비에게 있어서 강호라는 공간은 세속적 현실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작가는 평소에 동경하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강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몸과 인격을 수양함으로써 천하를 편안하게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품격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과 내용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실 생활이 극도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道를 버리지 않으며, 육체의 편안함 보다는 정신의 편안함과 만족함을 추구하는 安貧樂道의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으며, 자연에 대립하는 내가 아니라 둘이 하나 되는 상태가 얼마나 높은 경지의 道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 등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배우고 깨닫는 수많은 진리들을 통해 한층 높은 단계로 高揚되는 작가의 정신세계와 인격 등은 강호라는 특수한 시·공속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호의 공간에 계속해서 머무르진, 정치적 현실세계로 돌아가건 간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행로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2.4 永遠性的의 공간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가사 등에 사용된 강호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공간이었다. 유학을 바탕으로 한 통치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있어서 도교의 논리는 자신들이 동경하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 도교의 시간과 공간은 속세의 그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선비들의 이상세계로 설정된 강호의 공간 역시 속세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속세의 공간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것이 永遠性을 가질 때만 가능하게 되는데, 공간이 영원성을 가진다는 말은 직선적이고 일회적인 시간이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된다. 인류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오지도 않으며 순환되지도 않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렇게 파악되는 시간은 절대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²⁾.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되는 속세의 시간은 비반복적인 순간의 연속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영원성을 가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일회적 성격을 가지는 속세의 시간만으로는 영원성을 지니는 선계의 공간을 만들거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회귀하지 않는 단선적인 시간을 일정한 주기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시간으로 바꿀 때 시간은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속세의 공간을 仙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四季의 순환인데, 일 년을 주기로 언제나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강호가사의 한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므로써 작가는 일회적 시간을 순환적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간은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존재로 바뀔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고, 강호의 공간 역시 영원성을 지니는 선계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2) 그러나 시간 자체는 영원하다.

3 조선시대 선비와 江湖歌辭

3.1 朝鮮朝 선비의 성격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하면서 동방의 君子國으로 자처하던 조선왕조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지배계급에 속하는 양반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는데, 이들이 지닌 사회적·정치적 특권은 실로 대단했다. 그들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육체노동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어서 학문연마와 통치행위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철저한 유한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체 인구의 5퍼센트 이내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오로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명실공히 선비의 나라였다. 특히 왕실이 튼튼하지 못하여 왕권이 미약한 경우에 그들의 힘은 더욱 막강해서 국왕과 맞서는 일도 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힘은 진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선비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처럼 대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장치들을 개발했는데, 그 중 선비의 신분에 속한 인구가 전체의 5퍼센트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중심을 이루었다. 선비의 숫자를 묶어두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가도록 한 從母法이었다. 우리의 민족사에서 최대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종모법 때문에 조선시대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족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양반으로 진입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했고, 덕분에 사족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백성은 나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유학의 정치이념과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신분제로 인해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조선 사회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이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토대가 되는 토지와 정치적 세력의 바탕이 되는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만든 黨派간의 경쟁과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만든 당파간의 경쟁인 당쟁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의 핵심에서 밀려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로 유배를 가거나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서 은거하기도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러한 당쟁은 갈수록 격화되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가 되어서도 그치지 않았으니 급기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는 상황까지 내닫게 된다. 외침에 의해 국토가 초토화하고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가야 할 자리에 있었던 선비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토지와 권력을 가지는 대신 선비들은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라의 운영을 맡고 있는 그들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호가사를 짓고 즐겼던 조선시대의 선비는 경제적·신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자이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특권층으로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江湖歌辭의 개념과 범주

조선시대 최고의 특권층이었던 선비들에 의해 창작되고 불린 강호가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작가에게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강호라는 공간을 소재와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가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지어진 가사 중에는 자연을 노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호가사에 넣기 어려운 작품

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자연이나 자연현상을 노래한 것이면서 강호가사에 넣기 어려운 작품 중에는 정치권력에서 밀려나 유배를 가서 그곳 생활을 노래한 가사, 일정한 장소를 기행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보고 느낀 것을 노래한 가사, 내방가사이면서 자연에 대한 묘사와 나름대로의 풍류를 노래한 가사, 속세와 거리를 두면서 숨어사는 은거생활을 노래하는 불교의 가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나름대로 자연을 노래했다는 점에서는 강호가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작품의 대상으로 되는 자연이 강호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로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강호가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강호가사는 자연의 일부인 강호를 대상으로 하여 작가인 선비가 그곳에 생활하면서 느낀 정서를 일정한 이념과 지향점을 실어서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호가사만 갖추고 있는 특징들이 존재하게 된다. 강호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강호라는 공간을 소재와 배경으로 할 것, 둘째, 강호한정을 노래할 것, 셋째, 강호를 삶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공간으로 삼을 것, 넷째, 경물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이념을 실어서 표현할 것, 다섯째, 일정한 목적을 가진 풍류를 노래할 것, 여섯째, 안빈낙도를 추구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작품만을 강호가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강호가사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강호가사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강호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곳에서 느끼는 江湖閑情과 작가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安貧樂道를 실현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가사다.

4. 江湖歌辭의 性格

4.1 政治的 理念과 理想的 理念的 결합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호가사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떠나 선현들이 추구했으며, 자신들이 평소에 가장 동경하던 안빈낙도의 삶을 살기 위해 강호로 들어왔고, 그곳의 생활을 통해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적인 세계의 실현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호가사에 주로 따라다니는 말은 江湖歌道, 隱逸, 安貧樂道, 仙界指向, 物我一體, 閑精 등이다. 따라서 강호가사는 조선 선비들의 중심된 삶의 현장이었던 宦路의 세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하면서 작가가 동경하고 꿈꿔왔던 이념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강호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호가사에서 그러지는 강호라는 공간은 정치적인 현실과 이념을 모두 초월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지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강호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자신들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하는 세속적인 공간에 있기³⁾ 때문에 그곳을 완전히 떠날 수 없고, 또한 떠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작품에서 노래하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이상적인 세계와 이념만을 노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의 사유화가 가능했고, 왕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는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던 그 시대의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완전

3) 조선시대의 선비가 자연을 玩賞하면서 강호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신분과 경제적으로 뒷받침된 土地가 있었기 때문이다.

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이었고, 태생적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한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정치적 음모와 살육이 판치는 세속적인 공간을 떠나 순수성과 신성성을 간직한 강호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해도 세속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意識이 대상화하여 표현되는 강호가사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치를 떠나 있어도 정치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임금을 떠나 있어도 임금에 대한 연군의 정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자신을 묶었던 유학의 이념을 떠나 선계에서 도학적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유교적 이념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조의 선비들이었으니 이러한 정서가 작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호가사에는 이상적 세계로서의 강호에 대한 예찬과 도학적 세계관의 표출이 중심 되는 내용을 이루지만 작품의 요소요소에는 세속적인 공간에 대한 노골적인 미련과 강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임금의 성총을 잊지 못하는 연군의 정서를 표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적 이념을 강호에서 찾아 그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치적 이념에 바탕을 둔 현실적 이념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노래한 것이 바로 강호가사가 지닌 성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 隱逸的 現實의 理想的 現實化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정치적 현실을 떠나 강호를 찾고, 그 곳 생활을 노래하는 강호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관직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전원으로 돌아가 한가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노래한 致仕歸田系의 작품이 그것이다.

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환로가 힘들어지면서 평소 동경의 대상이었던 강호를 찾아 몸과 마음을 수양하겠다는 뜻을 노래한 安貧樂道系의 작품이 그것이다. 음모가 판치면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위해 스스로를 수양하는 생활을 노래한 것이든, 스스로의 의지로 전원을 찾아 강호의 자연을 즐기면서 安分自足하는 생활을 노래한 것이든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 숨어사는 隱逸的 생활을 노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은일적 생활은 현실을 떠나 있으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강호가사에서 노래하는 강호의 공간과 시간을 보면 그들이 강호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세속의 현실 공간과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강호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으며, 해와 달과 산과 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그것들의 운행과 질서가 세속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은일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은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 되는 세속의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가사에서 노래하는 강호라는 공간은 세속에서 말하는 자연의 공간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호가사에서 노래하는 공간인 강호의 의미를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

강호가사의 배경이 되는 강호가 물리적으로는 세속의 자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성격을 지니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데는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이상세계인 仙界와 강호가 맞닿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등지고 숨어살면서 청빈하면서도 고고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역사 속 隱士들이 머물렀던 공간과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동일시함으로써 강호라는 공간을 선계의 공간으로 옮겨 놓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호가사의 작가들이 머무는 강호는 이제 세속의 공간이 아니라 巢父와 許由, 그리고 羲皇

등이 머무는 선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강호가사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의미 확장은 공간의 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작품 속에 특수한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 되는 장치가 바로 일회적 시간의 순환적 시간으로의 전환과 序詞, 本詞, 結詞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三段構成法이 된다.

4.3 生活情緒의 觀照的 對象化

조선시대 선비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강호는 정치에서 물러나면 피해 들어가서 잠시 쉬어가는 피난처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강호를 노래한 시조나 가사의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평생을 그곳에 묻혀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할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호가사의 작가들은 먼 산을 바라보며 잔을 기울일 지언정 歸山의 뜻으로 入山 修道할 사람이 아니⁴⁾라고 보아 강호에 대한 관조자로 보기도 한다. 강호가사의 작가인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극히 안정된 신분과 함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로 강호의 공간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科擧에 실패하여 宦路를 포기하고 강호에 몸을 던진 선비나 벼슬길에 나갔더라도 士禍나 黨爭 같은 정치적 불운으로 인하여 향리로 돌아와서 강호에 묻힌 선비도, 아예 隱逸居士로 자처하며 聞達을 구하지 않고 학문을 닦으면서 인격을 수양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강호에 몸을 숨긴 선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을 생업의 현장으로 삼으면서 노동과 여가가 하나로

된 삶의 일부로 여기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관조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비들의 삶을 내부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호에 대한 그들의 삶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局外者로서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삶의 기본 방식으로 하는 일반 백성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삶이 학문의 陶冶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치국안민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산수자연을 찾아 안빈낙도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생활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은 현실과 이상이 교차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비록 때가 되면 강호를 떠날지언정 그곳에 머물면서 노래하는 것을 관조자의 입장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자연의 공간이 삶 자체의 공간으로 되는 일반 백성들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여 선비의 생활공간이 되는 강호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비들이 머물렀고 머물 수밖에 없었던 강호의 공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공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강호가사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 역시 局外者서의 그것이 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강호가 비록 삶 자체의 공간이 아닐 수는 있어도 생활의 공간인 것은 분명하고, 그곳에서 느끼는 생활정서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觀照的 경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강호가사에는 작가가 그곳에서 느끼는 생활정서가 관조적인 입장에서 對象化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속에 드러나는 생활정서를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즉, 선비에게는 강호로 여겨지는 자연이 삶 자체의 공간으로 인식되

4) 鄭在鎬, 『江湖歌辭小考』, 『語文論集』 17,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76, 177쪽.

며, 육체적 노동이라는 기술행위와 그곳에서 느끼는 생활정서가 하나로 되어서 생산물이라는 物的 財貨로 대상화하는 농부의 작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상화가 강호가사를 짓는 창작행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강호가사에 실린 선비의 생활정서가 관조적 대상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호에서 지내는 그들의 생활이 강호의 자연현상을 이상적으로 해석하여 관조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수양하는 과정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4.4 定型化되고 안정된 律格의 構造

율격은 주기적 반복구조에 의해 생기는 언어의 율동현상으로 일상언어처럼 사회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작품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관습적 산물이다.⁵⁾ 율격은 율동을 일정한 체제 아래 결합시키는 추상적 실체인 형식에 의해 감각적인 율격현상으로 태어난다. 형식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율격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는 音數, 音步, 行, 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추상적 공간에 의해 새로운 의미의 창조와 확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가의 예술미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音數는 音步를 전제로 하고, 音步는 行을 전제로 하며, 行은 章 혹은 篇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음수는 소리의 길이를 차별화하고, 음보는 소리의 길이를 균등화하며, 행은 주기적 반복 형태를 구조화하며, 장은 의미의 반복적 형태를 구조화함으로써 율격이 완성된다.

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가사는 章과 斂, 餘音이나 助興句 등이 복잡하게 쓰이는 속요 같은 작품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율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강호가사의 율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호가사에서 가장 큰 율격 단위는 行인데, 보통 수십에서 100개 내외의 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의 숫자는 율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音步와 音數가 강호가사의 율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行의 주기적 반복이라는 형태적 특징은 다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구조의 行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호가사를 짓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의 주기적 반복은 音步와 音數의 안정성과도 자연스럽게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수와 음보, 행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호가사에서 중심이 되는 音步律은 4音步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작품이 이 음보율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가가 4음보의 형식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호가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行의 지속적인 반복과 함께 안정성을 추구하는 율격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호가사가 지닌 율격적 특성은 音數律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의 차별화를 통해 매우 안정된 율격을 형성하도록 꾸며진다. 강호가사의 음수율은 하나의 行이 3·4音數의 중복된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점은 음수의 넘나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속요나 시조와 비교해 보면 매우 안정된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강호가사의 음수율이 3·4조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가사의 향유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속요나 시조의 경우는 노래나 창으로 불렀을 것이기 때문에 음수의 넘나들이 자유롭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창과 함께 吟詠의 향유

5) 율격의 본질은 이 외에도 언어현상, 추상적 실체, 규범체계, 주기적 반복구조 등의 성격을 지닌다. (성기욱, 『한국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14쪽)

6) 속요, 시조, 가사 등이 모두 4음보로 되어 있다.

방식을 함께 취했던 가사에서는 음수의 넘나듬이 너무 자유로우면 향유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읊조릴 수가 있고, 장편일 경우는 문자로 기록된 책자로 만들어 낭송을 통해서도 향유하게 되는데, 이때 안정된 음수율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강호가사가 음수와 음보, 그리고 행이라는 율격적 요소를 통해 안정된 율격을 확보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작가층의 안정된 生活과 意識, 음영의 가창방식, 그리고 폭넓은 향유층의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4.5 空間을 時間으로 해석하는 構造

우리 민족의 문화에서 삼단구성이라는 것은 정서의 표현을 비롯하여 생활 속의 많은 문화현상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표현방식⁷⁾인데, 가사에서는 序詞, 本詞, 結詞⁸⁾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바를 보면 서사에서는 강호에 머물게 된 동기나 이유를 말하고, 본사에서는 강호의 경물을 묘사하며, 결사에서는 작자가 지니고 있는 이념과 성은에 감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강호가사의 삼단구성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작품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시간적 순환을 통해 공간적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공간의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즉, 강호가사의 삼단구성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 혹은 과거를 거쳐 다시 현재로 회귀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속에 시간의 주기적 반복이라는 시간적 순환구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공간

적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속의 공간을 선계의 공간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사실 강호가사에서 작품의 소재가 되는 강호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 이상의 의미가 아니지만 작품을 창작하는 선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상을 이루어주는 신비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된 江湖는 自然的 純粹性和 道學的 神聖性을 간직한 공간이 되며,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때의 강호는 조선시대의 선비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의 작자가 世俗의 공간에서 江湖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삼는 시간의 순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世俗의 공간에서 江湖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인데, 이때의 시간은 世俗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江湖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장치를 함유한 것이 된다. 인류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오지도 않으며 순환되지도 않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절대 반복될 수 없어서 영원할 수 없고, 시간 자체만이 영원성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파악되는 世俗의 시간은 非反復的인 순간의 연속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영원성을 가질 수는 없게 된다. 한편, 가사에 등장하는 江湖의 공간과 시간은 신성성과 영원성을 가진 것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世俗의 순간적 시간으로는 영원성을 기본으로 하는 江湖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세속의 시·공에서 강호의 시·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시간을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즉, 회귀하지 않는 단선적인 시간을 일정한 주기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시간으로 바꿀 때만이 江湖의 時·空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四季의 순환과 하루의 순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일 년을 주기로, 낮과 밤은 하루를 주기로 하여 언제나 반복되는데, 이러한 순환적 자연현상을 순환적 시간으로 치환하여 작품의

7) 삼단구성의 방식은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특히 강호가사가 삼단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모든 논자들이 인정하는 바다.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므로써 작가는 일회적 시간을 순환적 시간으로 돌려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간은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존재로 바뀌게 됨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작품을 통해 표현되는 작가의 정서는 일회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넘어 사계절과 하루라는 순환적 시간에 실려 영원성과 순수성과 신성성을 가진 江湖의 時·空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江湖의 時·空으로 이동한 작가는 작품의 結詞 부분에서 자신의 이상을 드러내어 표현한다. 순환적 시간을 통해 영원성을 얻은 江湖의 시간과 공간은 작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결사에서 시간은 영원성 속에 정지한 상태가 되고, 공간은 모든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난 순수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작가는 신선이 되며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설정된다. 결사에서 보여주는 시간은 序詞에서 보여주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시간이라는 하지만 순간적 시간이 아닌 영원한 시간이 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현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간의 개념 역시 크게 바뀌게 되어 世俗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江湖의 질서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새로운 차원으로의 止揚이 이루어진다.

5. 江湖歌辭의 傳統과 繼承

5.1 江湖歌辭의 전통

강호가사의 출발은 경제적·신분적인 안정을 통해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조선조 선비들의 강호생활에서였다. 그러므로 그 전통은 조선이라는 국가체제가 유지되면서 유한계급

로서의 사족 신분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조선전기 丁克仁의 「賞春曲」을 효시로 하는 강호가사는 宋純의 「俛仰亭歌」와 鄭澈의 「星山別曲」등을 거치면서 전형화 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강호가사는 선비의 문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것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6, 17세기까지는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위치를 지키게 된다. 18세기 이후에는 조선사회의 급격한 변화⁹⁾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사는 기존의 작품 형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퇴조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서민가사, 내방가사, 개화가사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강호가사 역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일부 선비들에 의해 강호가사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앞 시대의 작품들에 비해 문학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사가 꾸준히 지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가사의 중심은 내방가사나 우국가사 등을 비롯한 다른 작품들로 옮겨간 뒤였고, 강호가사는 고사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노도처럼 밀려오는 신문물의 위력 앞에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으니 이로써 강호가사는 문학사에서 사라지는 운명¹⁰⁾을 맞이해야 했다. 일제강점기에서 풀려난 1945년 이후에는 시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현대사에 대한 교육과 창작으로 인해 강호가사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가사 문학의 흐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강호가사는 그 맥이 끊어졌다

9) 조선후기로 통칭되는 17세기 이후의 조선은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동, 신분제의 변동, 서민층의 성장, 새로운 사상의 유입, 상·공업의 발달, 농업기술의 발달 등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에 따라 문학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0) 구한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거성가(차성가)」, 「농서별곡」, 「울도선경가」, 「봉래별곡」 등을 강호가사로 보기도 하지만 주변의 경물을 주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기행가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강호가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사회상황이 형성되었으니 바로 전원생활과 관련을 가지는 웰빙 열풍이 그것이다.

5.2 江湖歌辭 계승의 방향

강호가사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경제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었던 선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된 가사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강호가사의 素材와 배경이 되는 강호는 선비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공간이면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物我一體의 공간이었으며, 心身修鍊의 공간임과 동시에 永遠性을 가진 理想實現의 空間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강호가사에서 보이는 그런 의미와 일치하는 공간으로서의 강호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조의 것과 같은 것으로 강호가사를 재현하는 일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호가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그 맥을 이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일견 허황된 주장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선조의 선비들처럼 신분과 경제가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강호가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가사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0세기는 과거의 청산과 더불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40년에 가까운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남북의 분단과 더불어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었으며, 민주화를 향한 수십 년에 걸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세기 10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 100년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강호가사와 같은 시가의 전통을 잇는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었

고, 그럴만한 환경도 형성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던 20세기를 슬기롭게 넘겼기 때문에 21세기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전원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웰빙이었다. 웰빙은 복잡하고 바쁘지만 한 도시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원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데, 생존경쟁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야 하는 도시의 공간에 대비되는 전원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물리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웰빙의 공간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안빈낙도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장소로 선택했던 강호의 공간과 대비된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이 추구하는 웰빙의 생활환경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강호에 생활하면서 지었던 강호가사의 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강호와 21세기의 웰빙을 추구하는 전원의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사실이다. 선비들의 생활공간이었던 강호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속적 공간이 있었기 가능했는데, 현대의 웰빙생활이 가능한 전원의 공간은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란 점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웰빙의 생활이 곧바로 강호의 생활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강호가사의 전통을 그대로 되살려서 그것과 일치하는 가사를 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웰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이라는 표현수단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가사는 3·4조 혹은 4·4조라는 음수와 4음보라는 비교적 간단한 율

격을 유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웰빙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생각들을 자연에 대한 묘사에 실어서 표현한다면 조선시대의 강호가사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먹는 작품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웰빙에서 강조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생활환경, 가사가 지니고 있는 창작의 용이성과 낭송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享有的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현대의 강호가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웰빙의 개념이 강호의 그것보다 넓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강호가사의 맥을 잇는 현대의 강호가사는 웰빙가사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結論

20세기에 들어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강제점령이 시작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가사문학은 내방가사를 제외하고는 그 맥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선비들에 의해 지어졌던 강호가사는 현대시로 불리는 서구풍의 자유시에 밀려 설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1945년 이후 구체화된 학교교육에서 가사는 과거의 문학으로만 다루게 됨으로써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20세기는 강호가사를 비롯한 가사문학의 퇴조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읽고 즐기는 향유방식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방가사는 물론이거니와 활자본으로 나온 가사체로 된 작품들은 전국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20세기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는 농촌사회의 붕괴를 가속화했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가사를 비롯한 소설의 향유방식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가사는 화석화된 문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강호가사를 비롯한 가사문학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서서히 마련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4·4조, 4음보가 계속되는 가사형태의 작품들이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지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불어 닥친 웰빙열풍은 강호가사와 같은 작품을 지어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사체의 형태로 지어진 현대의 작품들을 보면 명절을 보내면서 주부들이 느낀 시집살이의 풍경, 맞선을 보고 실패하여 낙향하는 노총각의 설움, 대중들의 우상이 되는 스타에 대한 찬양 등의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어서 가사문학의 새로운 부활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웰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전원생활은 자연과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곳에서 느끼는 정서들을 가사체의 노래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강호가사라는 명칭 대신에 시대의 추이에 맞추어서 웰빙가사로 이름 붙여도 좋을 새로운 형태를 지닌 강호가사의 등장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78.
 尹德鎭, 『江湖歌辭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1988.
 鄭在鎬, 『江湖歌辭小考』, 『語文論集』17,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76.
 趙潤濟, 『韓國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direction of tradition and succession of Ganghogasa

Son, Jong-heum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Japanese imperialists started to conquer the world, the Gasa literature failed to work properly, except the Naebanggasa. Especially the Ganghogasa, composed by Korean scholars, could not be maintained due to the arrival of the new style, free verse, from Western culture. After the year 1945, Gasa eventually disappeared from the Korean history since it was considered as an old form of literature in the new Korean education. Although the 20th century was a period of time in Korean history when the literature of Gasa and Ganghogasa declined, they were enjoyed through reading and writing til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reason for this was because literary works in the form of Gasatype, a printed book, and Naebanggasa had spread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at period, the rural literature collapsed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finally ended up as a loss of enjoyment involving the Gasa literature, thus making of enjoyment disappear from rural literature and, Gasa just became by-products of the old Korean literature in history.

Nevertheless after the time of early 21th century, the Gasa literature and Ganghogasa have seemed to revive. Actually nowadays many pieces of work in the form of Gasa in 4.4 Jo or 4 Umbo with various topics are disseminating all over the country through the internet, and a new trend of life called Well-being also helps Gasa to revive. Since literatures written in the form of Gasa show the same topics with modern people's lives such as Sijibsari, sympathy between an old and modern people could produce a root of the new revival of Gasa literature. In addition, Well-being trend providing people more opportunities for contact with nature and expectancy about expression of nature based on the form of Gasa boost the restoration. Thus it is expected that Ganghogasa, also called Well-being Gasa, would play a role in Korean literature as a new modern trend.

Key words : ganghogasa, well-being, well-being gasa, tradition and succession